

전북 제조업 기업심리 ‘소폭 하락’

비제조업은 큰 폭 반등… 내수부진은 여전히 최대 경영애로 요인

전북지역 제조업의 기업심리가 소폭 위축된 반면 비제조업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7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1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8월 전망지수는 95.7로 전월 전망치보다 1.6포인트 상승해 향후 기업심리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하락에는 제품 재고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

며, 신규수주와 생산 증가가 일부 하락폭을 상쇄했다. 반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2.0으로 전월보다 9.5포인트 상승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재산성과 업황, 매출, 자금사정이 모두 개선되면서 기업심리를 끌어올렸다. 다만 8월 전망지수는 84.9로 전월 전망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 업황 실적은 69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생산은 90으로 1포인트, 매출은 92로 8포인트, 신규수주는 87로 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8월 전망 역시 생산과

매출, 신규수주 모두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이 2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상승(21.5%), 불확실한 경제상황(14.5%), 수출부진(7.7%), 인력난·인건비 상승(6.2%) 순으로 조사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경쟁심화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감소했다.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63으로 전월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 매출 BSI도 67로 6포인트 상승했다. 재산성은 70으

로 10포인트, 자금사정은 65로 3포인트 각각 개선됐다. 그러나 8월 전망에서는 업황과 매출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제조업의 주요 경영애로 역시 내수부진이 27.9%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난·인건비 상승(18.8%), 자금부족(11.2%), 불확실한 경제상황(7.6%), 경쟁심화(7.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의 부담은 전월보다 커진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 4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 164개와 비제조업 225개 등 총 389개 업체가 응답했다. /오상근 기자



양파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북지역 농촌 여성들이 대규모 양파 소비촉진 행사에 나섰다.

전북 농가주부모임, 양파 소비촉진 나서

취약계층에 8톤 나눔… 부안서 농심천심 운동 전개

양파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북지역 농촌 여성들이 대규모 양파 소비촉진 행사에 나섰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이 육성하는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는 3일 부안농협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여심(女心)’이 함께! 양파 한 알의 기적, 건강 두 배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양파 소비촉진과 농심천심 운동 확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경제지주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고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와 농가주부모임 부안농협회 회원, 농협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관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2천여 명

에게 총 8톤의 양파를 직접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농산물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천심’ 정신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양파를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마음건강과 자살예방 안내장을 함께 배부하는 등 복합 돌봄 활동도 병행해 의미를 더했다. 김미자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는 농협경제지주의 후원으로 양파 농가와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었다”며 “농민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촌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농심천심 운동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1000대 기업 10곳 ‘제자리’ … 매출은 6.7% 증가

이스타항공 신규 진입에도 기업 수는 지난해와 동일

전북지역 1000대 기업 수가 지난해와 같은 10개사에 머물며 지역 산업을 이끌 대표기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하고 전국 순위도 상승하는 등 경쟁력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와 한국콘텐츠미디어가 발간한 ‘2026 한국 1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10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1000대 기업의 지난해 총매

출액은 9조9,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203억 원(6.7%) 증가했다. 또 10개 기업 가운데 8개사의 전국 매출 순위가 상승하는 등 기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의 신규 진입이 가장 큰 변화로 꼽혔다. 이스타항공은 항공 수요 회복과 국내의 노선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6,30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6.6% 성장했다. 전국 매출 순위도 2,150위에서 813위로 1,337계단 상승하며 처음으로 1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오상근 기자

매출 규모별로는 동우화인켐이 2조 892억 원으로 전북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전북은행, 하림, 제이비유리캐피탈, 타타대우모빌리티, 이스타항공, JB금융지주, 전주페이퍼, 참프레,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이 1000대 기업에 포함됐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됐다. 동우화인켐은 매출이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하림은 12.9%, 제이비유리캐피탈은 16.1%, JB금융지주는 19.5%, 전주페이퍼는 4.5% 각각 증가했다. 특히 JB금융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3개 기업이 2년 연속 1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안정적인 경쟁력을 이어갔다. /오상근 기자

그러나 기업 주변 확대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전북의 1000대 기업 수는 전국 12위 수준으로 전체 기업의 1.0%에 그쳤으며, 매출액 비중도 전국의 0.3%에 불과했다. 또 전국 매출 상위 200위권에 포함된 전북 기업은 올해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간 기업 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국내 1000대 기업의 73.2%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영남권이 15.0%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전남·광주를 포함한 전라권은 34개사로 전체의 3.4%에 그쳐 지역 간 산업 기반 격차가 기업 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건강기능식품 GMP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기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3일 건강기능식품 GMP(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전문인력 양성 교육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HPLC와 GC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석기기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모의면접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교육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 열려

전북테크노파크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6년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과 이해원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얼라이언스 운영 현황과 운영규정 개정,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에 따른 협력 방안, 분과별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회의에서는 상반기 이후 새롭게 가입한 10개 기관에 가입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공공기관 22개, 연구기관 15개, 기업 58개, 학계·학회·비영리기관 17개 등 모두 1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휴가철 전기안전수칙 준수 당부

여름철 전기화재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에게 전기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여름철 전기화재가 집중되는 주요 원인으로 에어컨과 선풍기, 제습기 등 냉방기기 사용 증가를 꼽았다. 특히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동시에 연결할 경우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가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

단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벽면의 전용 콘센트에 연결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에어컨은 단독 전용 콘센트에 사용할 것 △에어컨 실외기의 먼지를 제거하고 환기 상태를 점검할 것 △제습기와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은 하나의 멀티탭에 함께 연결하지 말 것 △휴가 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할 것 △야외에서 사용하는 밀선은 감전 상태가 아닌 모두 풀어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동각

내아